

경기가 좋아지면
산업재해도
늘어난다?



산업재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.



노동자의
불안전한
행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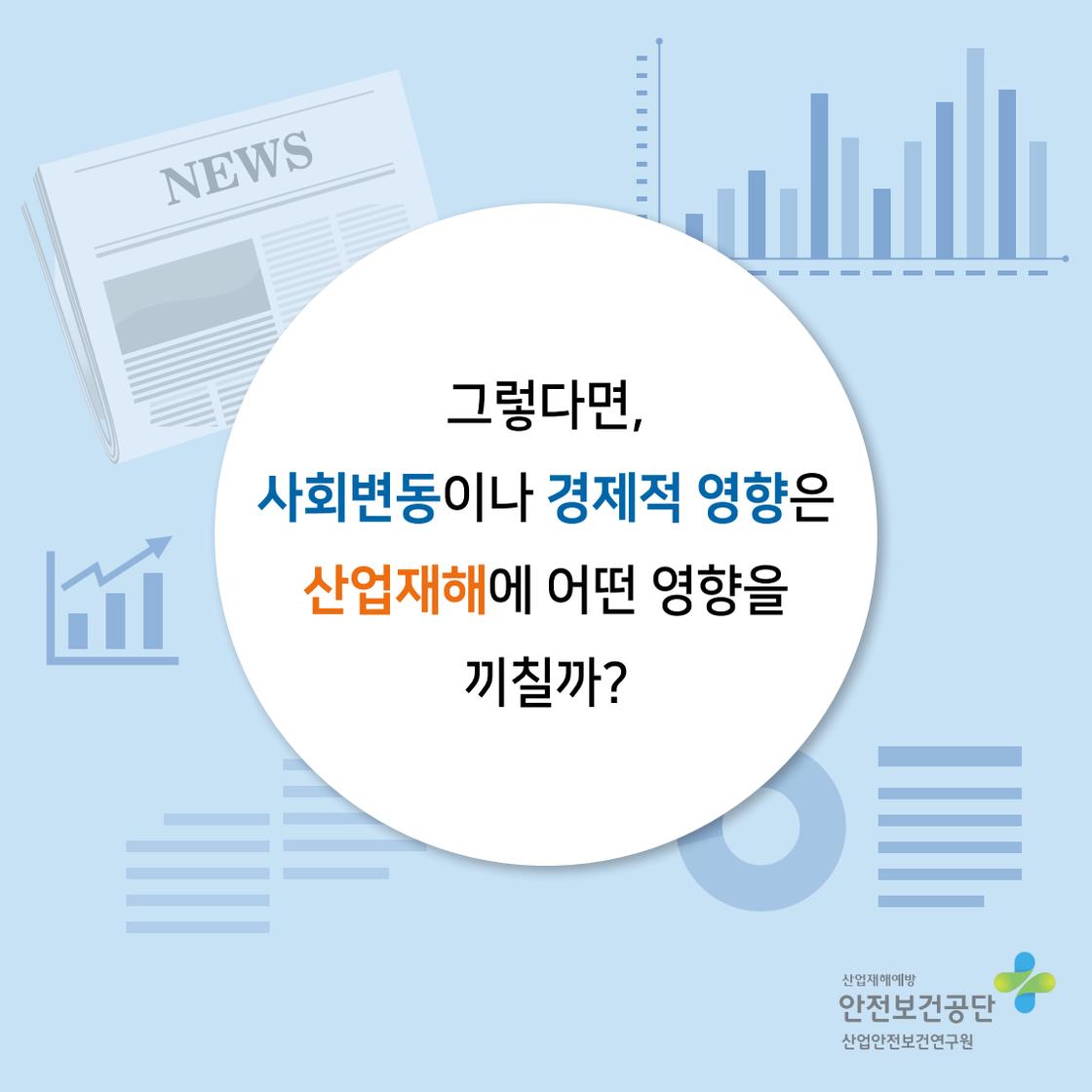


나쁜
작업환경



위험한
화학물질의
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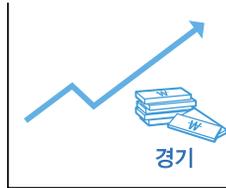




그렇다면,
사회변동이나 경제적 영향은
산업재해에 어떤 영향을
끼칠까?



대만에서 실시한 연구에
의하면 경기가 급속도로
좋아지자 실업률 또한
줄어들어 **산업재해가**
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(Chang et al.(2014))





과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일까?

연구자들은 경제성장률,
제조업 가동율, 건설수주액 등
다양한 경기변동 자료를
이용해 **계량경제학적 분석**을
시도하였다.



분석결과,
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
경기변동과 **산업재해 발생**이
유의한 연관성이 있는
것으로 나타났다.

경기
변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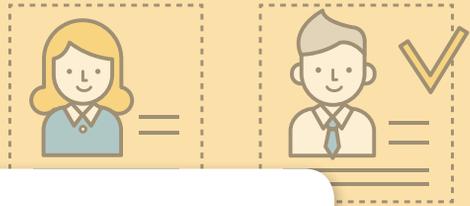
산업재해
발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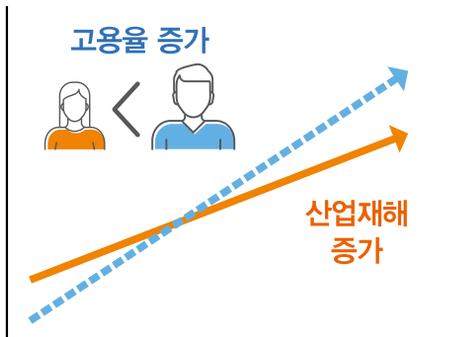


제조업 가동율이 높아질수록,
건축착공이 많아질수록,
서비스업 생산지수가 높아질수록
산업재해는 늘어나는 것으로
나타났다.





뿐만 아니라 고용율이 **증가할수록**,
취업자 중 남성비율이 **높아질수록**
산업재해가 늘어나는 것으로
나타났다.



반면 생산기기, 차량 등 생산에
필요한 설비를 교체하거나 구입이
증가하면 업무상사고사망자 수는
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

근로자수와 고용율의 증가는
약 2~3개월의 시차를 두고 **업무상
사고사망자를 증가**시키는 것으로
나타났다.



근로자수와
고용율의 증가



업무상
사고사망자 증가





연구자들은 경기적 요인과 산업재해
분석을 통해 **경기변화에 따라 보다**
탄력적으로 산재예방사업을 펼칠
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


출처

경기변동과 산업재해의 연관성 연구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